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예술분야 우수작품제작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예술분야 우수작품제작지원
-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6.16(목) 14:40~17:3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
 - 2016. 6.18(토) 14:40~17:3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
- 지원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6.18(토) 18:0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리딩룸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전통예술분야>

2016년도 전통 창작산실은 전통예술 분야의 유망하고 역량있는 예술가들의 창의적 예술을 지원·육성하고자 신설된 사업이다.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과의 예술적 교감 또한 중요한 사업 목적이며, 심사 시 공모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통 예술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창작작품인가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는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의를 거쳐 6개 작품이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을 위한 시범공연 실연심사 대상이 되었다. 실연심사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작품별 20분 시범공연 관람 후 10분간의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다. 시범공연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무대, 조명, 음향을 활용,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고, 우수작품 제작공연 시 계획하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공연당일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하였다. 시범공연 실연 후 6개 작품에 대해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심의기준으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개 작품을 우수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공연 대상 6개 작품 중에는 서류와 제안서 PT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완성도가 심히 우려되거나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작품들도 있었다. 기존 작업들과 차별성이 없거나, 시범공연이 계획과 많이 다르게 연출되고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실제 연출계획에 차이가 있는 작품일 경우, 또한 60분 이상의 완성작품 공연 시 음악적 변화와 다양성이 부족해 참신함이 기대되지 않는 작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을 두루 갖춘, 현저하게 월등한 우수작품이 많이 발굴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남는다.

우수작품제작지원 대상은 제안했던 기획의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작품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미디어아트와의 융복합 작품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기대되는 허윤정의 작품과 독특한 창작작업으로 세련된

구성과 작곡·연주가 돋보인 해금연구회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작곡비와 연습비의 현실화 등 제작예산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앞으로 수개월간의 심도 있는 작업을 통해 전통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이 시대 대중들과 즐겁게 호흡할 수 있는 창작산실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역량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다음 기회에 많이 공모하여 명실공히 전통예술분야의 진정한 '창작산실'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